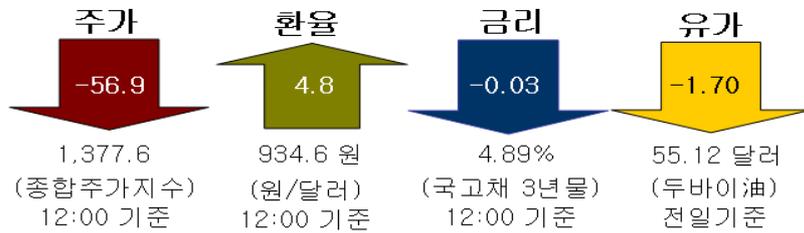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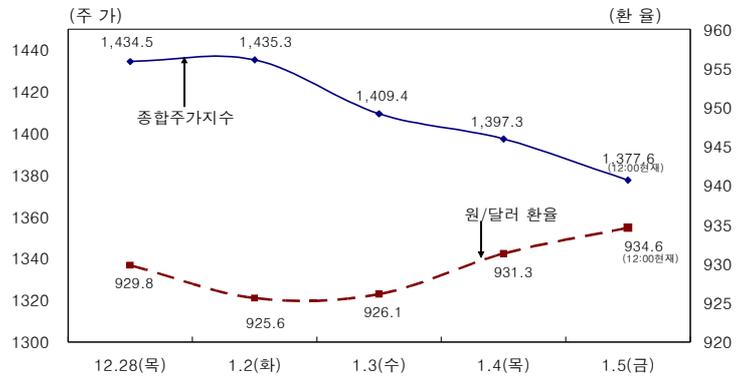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28~1.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정해년 신 구상(九想)	1
주간 경제 동향	23
□ 실물 부문 : 내수 부진 속, 수출 경기 호조 지속	23
□ 금융 부문 : 국내 주가 급락	2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이 원 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표 한 형 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남 중 현 연구위원 (3669-4142, netch30@hri.co.kr)
 □ 동북아연구센터 : 홍 순 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 sjhong@hri.co.kr)
 □ 지식산업실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예 상 한 연구위원 (3669-4181, syeahk@hri.co.kr)

Executive Summary

□ 정해년 신 구상(九想)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성장, 실물, 대외, 금융, 기술·산업, 정치, 사회, 문화, 남북 관계 등의 정해년 신 구상(九想)을 선정하였다.

① 성장 : 미래 비전 신드롬을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2007년 한국 경제에는 대통령 선거, 선진국 진입의 임박, 저성장 장기화 등의 원인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비전 신드롬'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실물 : 토지공개념 논의 활성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 내 부동산 가격 안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권이 토지공개념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③ 대외 : 다차원적 수출 모델로 변환

정부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 중국 경제의 고성장,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지역의 다변화되어, 수출 대상 지역 집중화에 따르는 리스크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④ 금융 : 신 금융 빅뱅

증권 산업은 낙후된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등과 같은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⑤ 기술산업 : 제2의 인생 (The Second Life)

3차원 그래픽, 대용량 통신 등의 IT 기술 발전,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족감 등으로, 인터넷 상의 가상 세계(virtual community)와 아바타(Avatar) 등을 통해 오락성과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제2의 인생(The Second Life)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⑥ 정치 : 실용중도(實用中道)가 지배할 2007년 한국 정치

2007년에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중도를 표명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각 정당들은 유권자 지지 확보를 위해 실용중도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⑦ 사회 : 한국 사회를 주도할 여풍 (女風)

리더의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력과 윤리성의 부각,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섬세함과 다채로움의 강조,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등으로 사회 전반에 여성 진출 확대와 위상 제고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문화 : 진화하는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Mass+Exclusivity)

소비자 개인들의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명품 소유욕 증대로 차별성과 희소성을 갖춘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극소수 특별 고객을 위한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⑨ 남북 관계 : 남북 관계의 신지평 전개

부시 행정부가 중간 선거 패배, 이라크 전쟁 실패 등으로 외교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 협정 체결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어, 향후 북핵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2007년 예상되는 국내 신 구상(九想)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르는 시장 왜곡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따르는 증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여 구조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진출을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는 트렌드에 맞추어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정착되도록 가상공간에서의 질서 확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에 관하여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무드의 기회를 잘 살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향후 예상되는 중후진국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비하여 품질과 같은 비가격 경쟁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 내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소비자들에 대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를 타지 않는 고가품 소비 시장이 기존의 매스티지에서 매스클루시버티로 진화하는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 정해년 신 구상(九想) >

선정 방법 -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성장, 실물, 대외, 금융, 기술-산업, 정치, 사회, 문화, 남북 관계 등의 새로운 구상(九想)을 선정

구상(九想)

국내 9대 트렌드	① 성장 : 미래 비전 신드롬을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미래 비전 제시 -현실성이 결여된 정치 경제 논리 반영 우려
	② 실물 : 토지공개념 논의 활성화	-정치권과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적극적 검토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단 시장 왜곡에 따르는 부작용도 가능
	③ 대외 : 다차원적 수출 모델로 변 환	-선진국 수출 비중 감소, 중후진국 수출 확대 가속화 -수출 집중에 따르는 대외 리스크 분산에 기여
	④ 금융 : 신 금융 빅뱅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영향으로 증권 산업의 M&A, 증권사의 대형화, 초대형 투자회사의 등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
	⑤ 기술-산업 : 제2의 인생(The Second Life)	-아바타를 통해 가상 세계에서 또 하나의 인생을 창조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
	⑥ 정치 : 실용중도(實用中道)가 지 배할 2007년 한국 정치	-상당수 유권자들이 중도 성향을 표명함에 따라, 대선 을 앞둔 정치권도 표심을 겨냥한 실용 중도화로 전환
	⑦ 사회 : 한국 사회를 주도할 여풍 (女風)	-사회 전반에 여성 진출 확대와 위상 제고 급진전 -산업 고도화, 사회 인식의 개선 등이 주된 원인임
	⑧ 문화 : 진화하는 매스클루시버티 (Massclusivity)	-기존의 대중명품(Masstige=Mass+Prestige) 트렌드 로부터 극소수의 특별한 고객을 위한 매스클루시버 티(Massclusivity=Mass+Exclusive) 로 진화
	⑨ 남북 관계 : 남북 관계의 신지평 전개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대 체될 가능성이 높아짐

대응 방안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 > 토지공개념 도입에 의한 시장 왜곡 가능성 차단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르는 혼선 방지 > 여성 사회 참여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기반 확대 > 사이버 공간에서의 질서 구축 >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속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후진국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대비 > 기업 내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 > 사이버 소비 계층에 대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강화 >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 강화 	

□ 정해년 신 구상(九想)

1. 개 요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7년에 예상되는 성장, 실물, 대외, 금융, 기술산업, 정치, 사회, 문화, 남북 관계 등의 신 구상(九想)을 선정함

- 成長(미래 비전 신드롬을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 2007년 한국 경제에는 대통령 선거, 선진국 진입의 압박, 저성장 장기화 등의 원인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비전 신드롬’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實物(토지공개념 논의 활성화)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 내 부동산 가격 안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권이 토지공개념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對外(다차원적 수출 모델로 변환) : 정부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 중국 경제의 고성장,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지역의 다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임
- 金融(신 금융 빅뱅) : 낙후된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에 앞서, 증권 산업에서는 M&A를 통한 대형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등과 같은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技術·産業(제2의 인생, The Second Life) : 3차원 그래픽, 대용량 통신 등의 IT 기술 발전,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족감 등으로, 인터넷 상의 가상 세계(virtual community)를 통해 오락성과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제2의 인생(The Second Life)이 급속히 확산될 것임
- 政治(實用中道가 지배할 2007년 한국 정치) : 2007년에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중도를 표명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각 정당들은 유권자 지지 확보를 위해 실용중도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社會(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女風) :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자의 통합력과 윤리성의 부각,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섬세함과 다채로움의 강조,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등으로 사회 전반에 여성 진출 확대와 위상 제고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文化(진화하는 매스클루시버티) : 소비자 개개인들의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명품 소유욕 증대로 차별성과 희소성을 갖춘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극소수의 특별한 고객을 위한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 = Mass + Exclusive)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南北 關係(남북 관계의 새로운 신지평 전개) : 중간 선거 패배, 이라크 전쟁 실패 등으로 외교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최근에 들어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 협정 체결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통해 북한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북핵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음

2. 정해년 국내 신 구상(九想)

1) 성장 : 미래 비전 신드롬을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 2007년 한국 사회에는 저성장 탈출, 선진 사회 진입과 같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비전 신드롬'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의미) 2007년에는 경제 관련 정부 부처,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競選 및 大選 후보), 민간단체 등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미래 비전이 제시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정부는 '비전 2030'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한국 사회의 중장기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에는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집을 통해, 경제·사회·외교·남북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임기 내 공약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음
 - 예를 들어 2002년 대선 후보들은 당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 '평등한 세상 자주적인 나라' 등과 같은 대표 공약과 함께 20개 내외의 기본 정책과 수백 개의 실천 공약을 제시함
 - 특히 최근에 들어 시민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정치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한국 사회 내 의사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바람직한 미래상과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원인) 미래 비전 신드롬이 확산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2007년의 특별한 의미, 경제 발전 단계상 과도기적 위치, 저성장 장기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2007년의 특별한 의미 : 현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따르는 정책 평가, 장기 비전 제시가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2007년은 외환위기 이후 10년차(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긴급 국제 자금 요청)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를 기점으로 시련 극복 평가와 희망 제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

- 경제 발전 단계상 과도기적 위치 : 한국 경제가 2007 ~ 2008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선진 시스템에 적합한 사회 전반의 목표가 새로이 설정되어야 필요성이 대두됨
1인당 GNI : 11,176달러(1997년) → 14,193달러(2004년) → 16,291달러(2005년)
- 저성장 장기화 : 저성장 장기화로 고용 부진 지속, 서민 경제의 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속됨
 - 저성장 장기화 : 한국 경제는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4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음
 - 고용 부진 지속 : 외형상 실업률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으나, 실질 임금 증가율 하락(노동부 실질임금지수 상승률은 2003년 5.7%에서 2006년 1 ~ 3/4분기에 2.4%로 하락), 청년 실업난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
 - 서민 경제의 파탄 : 최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 계층의 2006년 3/4분기 현재 1분위 소득 계층의 명목 소비 지출은 118.9만 원으로 명목 처분가능소득 111.4만을 상회하여 적자율이 6.73%를 기록함
 - 법원에 신청된 개인 파산 건수는 2001년 672건에서 2006년 1 ~ 10월에 96,181건으로 급증
- (시사점 및 과제) 미래 비전 제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경제가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선진국인 아너스 클럽(honors club)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표심을 얻으려는 현실성이 결여된 정치 경제 논리(Political Economy)가 반영될 우려가 존재함
 -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야당은 향후 20년간 연간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여당은 임기 내 7% 성장률을 공약한 바 있음
 - 따라서 미래 비전은 '장밋빛 청사진' 만을 담아서 안 될 것이며, 예상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 지향 정책(Total Solution Policy)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 사회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어지는 정책들은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법, 예상되는 정책 부작용 등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도 함께 담아야 할 것임

1)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상회하는 국가들로서 2005년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19개국이 해당됨

2) 실물 : 토지공개념 논의 활성화

○ (의미) 최근에 들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치권도 토지공개념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최우선의 경제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

- 토지공개념의 개념 :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사유재산권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토지의 이용을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함
 - 토지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공급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투기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국·공유지 및 공영 주택의 비율 확대, 부동산 가격 규제, 과세를 통한 시세차익 환수 등이 이에 해당됨
-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구체적으로는 분양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제, 보유세 확대와 함께 다른 세금을 인하하는 패키지 세제개혁 등을 주장함
 - 환매조건부 분양제** :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분양하지만, 분양자는 이를 분양한 기관에 대해서만 되팔 수 있는 제도
 - 토지임대부 분양제** :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채로 건물만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 제도임. 싱가포르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전국민의 80%가 이러한 방식으로 분양된 공공주택에 살고 있음
- 한편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재정 부담이나 시장 왜곡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론의 추이를 보아 이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임
 -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토지임대부 분양제에 비하여 재정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원인) 여러 차례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가 확산되었음

- 10.29 대책, 8.31 대책 등 현 정부 들어 많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함
·2006년 11월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상승하였으며 2002년말 대비로는 28.5% 상승하였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동원되었으나 모두 역부족이었으며 추가로 사용가능한 정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로 인하여 그동안 묻혀져 있던 토지공개념의 도입논의를 다시 촉발시킴
·공급 확대는 판교 등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금리 인상은 경기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 (시사점 및 과제) 토지공개념 도입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

-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과거에 이미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99년 4월 위헌결정)와 토지초과소유이득세(94년 7월 헌법불합치 판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위헌 시비가 재연될 우려가 존재함
·정부가 주택 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는 시장 왜곡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 수급 불일치가 더욱 심화될 것임
-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은 국공유지로 대상을 한정해야 할 것임
·한편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조세정책, 대출규제 등과 같은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할 것임

3) 대외 : 다차원적 수출 모델로 변환

- 수출 대상 지역의 다변화는 주요 수출국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 분산 효과를 주지만,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인한 선진국 수출 감소에 대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임
- (의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브릭스(BRICs), 아세안(ASEAN)²⁾ 등 중·후진국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수출 대상 지역의 다변화가 진행될 것임
 - 對선진국 수출 감소 : 미국, 일본, EU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2년 42.9%에서 2006년 1~11월에 36.4%로 하락함
 -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14.5%에서 13.3%로 감소하였으며, 對日 수출 비중은 9.3%에서 8.1%로 낮아짐
 - 중·후진국 수출 증가 : 반면, 브릭스, 아세안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2년 28.2%에서 2006년 1~11월 35.4%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 브릭스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2년 16.9%에서 2006년 1~11월 9%p 증가
 -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2004년까지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 이 지역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비중이 다시 확대됨
 - 또한 메르코수르(MERCOSUR)³⁾에 대한 수출도 아직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지역별 수출 비중 >

(단위 : %)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1~11)
미국	20.2(5.0)	17.7(4.4)	16.9(25.2)	14.5(-3.5)	13.3(4.7)
일본	9.3(-8.3)	8.9(14.1)	8.5(25.6)	8.4(10.7)	8.1(10.6)
EU	13.4(10.5)	12.8(14.7)	14.9(52.0)	15.4(15.4)	15.0(12.2)
BRICs	16.9(23.9)	21.0(48.5)	22.7(41.1)	25.6(26.6)	25.6(14.5)
ASEAN	11.3(11.8)	10.4(10.1)	9.5(18.6)	9.6(14.2)	9.8(15.9)
TVT	3.3(27.2)	3.3(18.7)	3.5(36.7)	3.4(8.3)	3.4(6.4)
MERCOSUR	0.8(-33)	0.7(1.2)	0.8(53.5)	1.0(34.6)	1.1(27.4)
전체 수출 규모	162,470(8.0)	193,817(19.3)	253,844(31.0)	284,418(12.0)	296,810(14.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EU의 경우, 2004년 5월부터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가입국이 증가함

2) 괄호 안은 증가율임

3) TVT는 타이, 베트남, 터키의 신흥 3개국을 지칭함.

- 2) ASEAN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10개 국을 지칭함.
- 3)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에 출범시킨 남미 공동시장을 의미함.

○ (원인) 정부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르는 근린(近隣)효과,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이 중·후진국 수출 비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중·후진국 FTA 추진 : 정부는 2004년 4월 칠레와 FTA 발효, 2006년 3월 싱가포르와 FTA 발효, 2006년 6월 아세안과 FTA 상품무역협정 체결, 멕시코와 FTA 협상 진행 등 FTA를 통해 수출 다변화를 시도함
-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르는 근린효과 : 중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투자 수요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원자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효과가 발생함
 - 2006년 1~11월중 對中 수출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2.5%에 달하고 있음
- 세계 경쟁력 상실 : 이에 반해 세계 경쟁력 상실에 의한 중저가 상품의 중·후진국 수출 증가가 결과적으로 수출 다변화를 가져옴
 - 한국의 세계 1등 상품이 감소되는 등 선진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 기업 제품이 중저가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후진국 수출이 증가함
 - 한국의 세계 1등 상품 수는 1991년 97개 이후 2004년에는 59개로 32.2%나 감소를 나타냄⁴⁾

○ (시사점 및 과제) 수출선 다변화는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선진국 경제 상황 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후진국 시장에서도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 FTA 활성화 : 정부는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EU 등과의 FTA 추진,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 확대 등 적극적인 교역 활성화에 주력해야 함
- 비가격 경쟁력 강화 : 기업들은 선진국 수요 뿐 아니라 중후진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
 - 특히 중후진국에서도 신흥공업국들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기술, 품질, 브랜드와 같은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도 절실함

4) '2004년 세계수출 점유율 1위 품목과 변동 요인 조사', 한국무역협회, 2006.4.26을 참조.

4) 금융 : 신 금융 빅뱅

○ 2008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는 증권사의 대형화 등으로 기존 금융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자본시장통합법의 골자 : 기존 증권사가 일정 시장진입 조건을 갖추어 금융투자은행으로 재등록하거나 인가를 마치면 증권업무, 선물, 자산운용, 외국환업무 등 예금과 전통적인 보험 업무 이외의 모든 금융 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됨

- 증권사들의 금융투자회사화 : 선발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회사화되면서 핵심역량과 혁신노력으로 시장기반을 구축하면 후발 증권사는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금융투자회사로의 변신을 꾀할 것임
·이에 따라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자본 확충이나 M&A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증권 산업의 지각변동을 야기할 것임

○ (원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낙후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것임

- 부진한 자본시장 성장세 : 한국의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채권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각각 49%와 68%인데 반해 OECD 가입국 평균은 동 76%와 88%로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취약한 증권업 경쟁력 :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해 한국 증권업의 양적·질적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규모 경쟁력 취약 : 2005년 말 현재 국내 증권회사 중 자기자본 랭킹 1~4위를 합하면 7조 원인데 반해 세계 3대 투자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은 30조 원 이상임

·낮은 수익률 : 2004년말 현재 세계 3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9.5%, 15%, 16.9%인 반면 국내 4대 증권사는 -11.7~4.6%에 불과함

5) 2002~2004년의 평균수치이며,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산업의 전략」, 『The Capital Market Forum』, Vol. 3., No. 3., Sum. 2006을 참조.

- **후진적인 영업모델** : 또한 국내 증권사들은 위탁매매업 위주의 영업모델로 기업금융,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균형 있게 영위하는 글로벌 투자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계 투자은행들의 위탁매매 비중은 2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 3대 증권회사의 평균 위탁매매업 수익 비중은 58%에 이릅니다
 - **성장 잠재력 제고** : 한편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성장동력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해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자본 공급 등 자본의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투자은행의 육성이 중요함
- (시사점 및 과제) 자본시장통합법은 다양한 파생적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고 여타 금융관련 법규와 상충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
- 자본시장통합법은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파생되는 문제점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상충되는 문제 해결이 큰 과제임
 - 특히,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음
 - 또한 자본시장통합법과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업분야에 관한 법의 불균형과 금융규제의 일관성, 효율성, 감독의 안정성 유지 문제, 은행업, 보험업과의 부수업무 및 취급상품 조정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독립 대형 증권사와 자금력과 영업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그룹 증권사간의 업무 영역 분화가 예상됨
 - 독립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기매매(PI)나 기업공개(IPO)와 같은 투자은행 고유의 업무에 특화하는 반면, 은행 및 보험그룹 증권사들은 파생상품 판매 등 소매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권업계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공멸할 수 있으므로, 각 증권사들은 지속 가능한 투자은행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기술산업 : 제2의 인생(The Second Life)⁶⁾

○ (제2의 인생의 개막) 인터넷 상의 가상세계(virtual community)를 통해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제2의 인생(The Second Life)이 급속히 확산될 것임

- 제2의 인생의 정의 : 인터넷 상의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게임도 즐길 뿐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 비즈니스 등 현실 세계와 동일한 체험을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현상

- 수단 : 아바타(Avatar, 분신 또는 화신을 의미)라는 사이버 공간 상의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만화 캐릭터와 각 사이트 또는 게임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아이템들, 사이버 머니 등을 이용함

○ (확산 원인) 3차원 그래픽 영상의 발전, 대용량 통신 기술의 발달, 오락성, 대리만족감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자들이 급증함

- 3차원 그래픽 영상의 발전 : 최근 3차원 그래픽 영상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느낌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음

- 고속 대용량 통신 기술의 발달 : 제2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래픽 영상, 각종 배경에 사용되는 동영상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고속 대용량 통신 기술의 발달이 필수적인데 최근 이러한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함

- 오락성 : 온라인화로 인해 다중 접속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 내에서의 커뮤니티 형성, 소그룹간 경쟁, 실시간 사용 등의 사용자 편이성 향상으로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는 충분한 오락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음

- 대리만족감 :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해주는 아바타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꾸밀 수 있으며, 현실세계에서의 생활환경이나 자신의 지위 등도 가상세계에서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등 대리만족감이 강함

○ (영향) 제2의 인생을 즐기려는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secondlife.com : 경제활동에 거의 규제가 거의 없고, 세금이 없으며,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며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어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이 사이트를 자사 신제품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6) 본문 내용은 Financial Times, 18, Nov., 2006 등 각종 언론사 보도 자료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로 작성.

- 사용자** : 현재 160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에 의해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들 기업들은 한 달에 약 1,000만 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월 10~2,00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 기업** :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인텔, 아디다스, 토요다 자동차 등 세계 1류 기업들 또한 자사 신제품 마케팅 등을 위해 속속 진입하고 있음
- **한국 dadaworlds.com, popple.com 등** : 한국의 제2의 인생 비즈니스는 미국의 sencndlife.com에 앞서 dadaworlds.com이 시도한 바 있으며, popple.com, 싸이월드로 이어지면서 절정을 맞이하고 있음
 - dadaworlds.com** : 2002년에 3차원 채팅 프로그램에 건축기술을 추가해 사이버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2의 인생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으나, IT버블의 붕괴와 고속 대용량 통신망 등 인프라 미흡으로 실패함
 - popple.co.kr** : 초대형 유람선에 자신이 직접 만든 개인 선실과 다양한 선실들을 넘나들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현실세계를 잘 반영한 유람선 개인 선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기를 끌고 있음
 - 싸이월드** : 현재 회원 수 1,90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이트는 인터넷으로 인맥을 구성해준다는 개념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사이버상에서의 커뮤니티 확장 뿐 아니라 자신의 방을 스스로 꾸밀 수 있는 등 실생활과 유사한 체험이 가능한 등 제2의 인생에서의 커뮤니티 기능이 극대화됨
- (시사점) 서비스 제공 기업은 현실세계의 상품·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오프라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비즈니스기회 제공, 서비스 이용자간 범죄 발생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 개발 가속** : 3D 그래픽, 상품 및 서비스 아이템 등 사용자 이용 공간 및 아이템들을 현실세계와 거의 동일하게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오프라인 기업과의 연계** : 현실세계의 다양한 아이템을 가상세계에서 제공하고, 이를 상품 및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전개가 필요함
 - **사이버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커뮤니티의 발전으로 집단이 개인을 공격하거나, 불법적인 상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감시·감독 체제를 강화해야 함

6) 정치 : 실용중도(實用中道)가 지배할 2007년의 한국정치

○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유권자 지지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의 실용중도(實用中道) 수렴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보수와 진보의 성향 : 보수는 평등보다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 진보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에의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함

- 최근의 실용중도 수렴현상 :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공약 등 평등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기업 축소 등 親기업적인 정책을 수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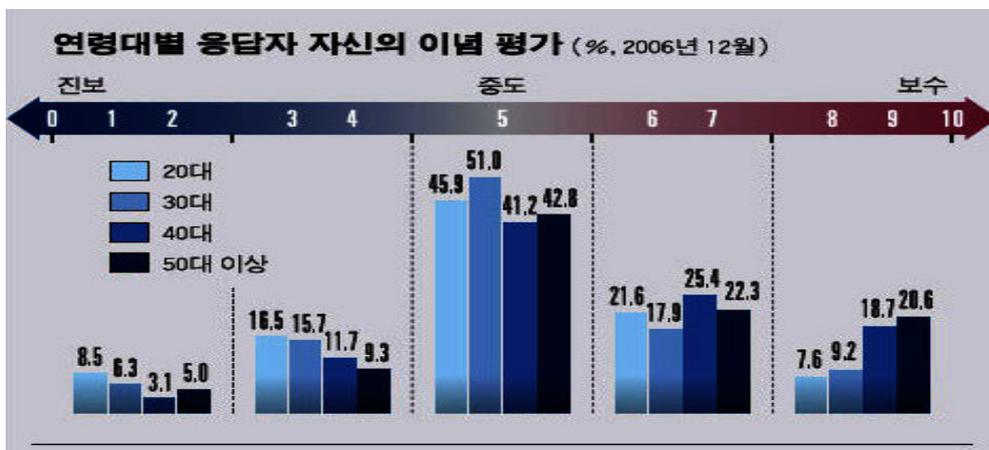
·한나라당 : 최근 홍준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반값 아파트'공약과 11월 30일 그동안 비난해오던 종부세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

·정부 및 열린우리당 : 다수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11월 15일 정부가 최종 결정한 것은 보수적인 정책을 적극 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함

○ (실용중도 수렴 원인) 많은 유권자들이 보수나 진보보다는 중도를 표명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당들 또한 항상 집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이들의 이념적인 지향을 중도수렴으로 전환시킬 것이기 때문임

- 유권자들의 중도 수렴 : 거의 모든 현대사회에서의 유권자들의 이념적인 성향은 양극단보다 항상 중도가 다수를 점하는데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님

< 연령대별 응답자 자신의 이념 평가 >



자료 : 한국일보, "대선 1년 전 국민의식변화 조사", 12월 18일.

- 정당들의 집권욕 :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 이념적 색채를 감추고 실용중도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함
 -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적인 유권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다면 다수표 획득이 가능하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얼마나 확보할지가 각 정당의 집권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전망) 보수적이었던 정당들은 좀 더 진보적인 정책을 수용하려고 할 것이고 진보적인 정당들은 좀 더 보수적인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정책에 있어서 수렴현상이 발생할 것임
 - 한나라당 :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같은 국토개발 청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용주의노선을 부각시킴
 - 열린우리당 : '親기업', '先성장' 등을 주장하는 고건 前총리나 정운찬 前서울대 총장 영입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통합신당과 의원들의 증가는 이미 열린우리당의 중도 수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민주노동당 : 집권을 위한 중도(中道)로의 정책수렴 추세에 동참하거나 반대로 당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보다 이념을 더욱 분명히 내세우는 상반된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할 것임
 - 기타 군소정당이나 급조 정당들은 기존 정당들이 실용노선으로 기운데 대해 실망하여 지지를 철회한 진보나 보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기반 개척을 위해 단시간 안에 지지층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적극 표명할 가능성이 큼
- (시사점) 각 정당들이 이념에서 벗어나 중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정책중심 정치의 성숙을 의미할지는 불확실함
 - 대통령선거에 임해서 각 정당들은 선거 전략상 실용중도 노선을 택하였을 뿐이고 선거후에는 다시 원래의 행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다른 선거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성을 발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본래 표방하였던 이념적인 지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할 것임
 - 한국은 그 해결 방향에 있어 국가적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 폐제, 소득양극화, 對북한 관계정립, 교육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타협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7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7) 사회 :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女風⁷⁾

○ 정치, 사법, 행정, 사회전반에 걸친 여성 진출 확대와 위상 제고가 급진전 되는 등 향후 여성이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할 것임

- 최근 고위급 정관계, 법조계와 공무원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약이 뚜렷해짐
 - 정치계 : 대권주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한명숙 국무총리, 추미애 전 민주당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선옥 법제처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정관계 고위층에서 활약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임
 - 법조계 :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이 임명되고, 여성 예비판사 임용자는 92명 중 59.8%인 55명으로 남성 예비판사보다 많음
 - 행정부 : 행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44%, 외무고시 52.6%, 사법시험 32.3%로 매년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또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CEO 또한 다수 탄생하고 있음
 -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2006년 여성취업자는 991만8천명으로 2005년 대비 2.1%(20만6천명)증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3%로 2005년 50.1%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 두 명중 한 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여성 CEO 두각 : 2004년 기준여성 운영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319만개)의 37%인 114만개이며, 여성 CEO를 둔 벤처 확인기업과 이노비즈 인증기업이 각각 50개, 200개에 달하는 등 여성 CEO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여성 활약 증가 원인) 사회지도층에게 요구하는 화합과 윤리, 서비스업에 적합한 섬세함과 다채로움을 갖춘 여성들의 역할이 중시되고, 성차별에서 양성평등으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 고위지도층의 여성 진출 원인: 권력기반 강제적 리더십에서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었으며 여성의 윤리적 강점 또한 크게 작용
 - 사회적 요구 변화: 여성 지도자는 남성 지도자에 비해 윤리적인 인재풀 구성과 탈권위적 배려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함

7) 본문 내용은 한국경제,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각 언론사 보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산업 고도화:** 섬세함과 다채로움을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 운영 사업체 증가의 기반이 됨
 - IT산업의 발전 등으로 문화와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하면서 디자인, 콘텐츠와 같은 여성의 섬세함과 다채로움을 필요로 함

- **양성평등 확산:** 남녀고용평등법 등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성차별적 관습이 점차 퇴색되고 전문성을 갖춘 여성에게 평등한 사회진출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
 - 다양한 전문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의 증가는 여성의 전문성 다양화 뿐 아니라 남녀 구별 없는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점 및 과제) 향후에도 뛰어난 여성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여성의 경제·사회 기여도 증대:** 탈권위주의적이며 윤리적인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한편, 양성평등 의식의 급속한 확산으로 향후 뛰어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가와 그들의 경제·사회 기여도도 증대될 것임

- **기업 내 인식재고:** 여성을 권력의 하부구조가 아닌 평등한 동료로서 보는 기업 구성원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이를 확산시키고자하는 일관된 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함

- **사회적 기반조성:** 보육시설의 선진화, 여성 능력 개발 기회 확대 등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이 필요함
 - 전문직 여성의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으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선진화 등 사회 인프라가 필요함
 -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을 다양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야함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를 위한 직장복귀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재취업 촉진 등의 정책 또한 필요함

8) 문화 : 진화하는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⁸⁾

○ 최근 기존의 명품(Masstige)이 대중화됨에 따라 차별성과 희소성을 갖춘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극소수의 특별한 고객을 위한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 마케팅이 강화될 것임

- 정의 :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는 대중을 의미하는 Mass와 특별함 또는 유일함을 의미하는 Exclusive의 합성어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체제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고객에 대한 맞춤형 최고급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을 말함

- 등장 배경 : 버버리, 구찌, 샤넬 등 이른바 기존의 명품이 대중화에 따라 소비자 개개인들의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명품 소유욕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진화하는 매스클루시버티) 매스클루시버티는 기존 산업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최근에는 Blingclusivity 현상, Cyber Exclusivity 현상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 확산되는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 : 최근 카드, 의류, 가전 등 소비 관련 전 분야에서 극소수 초우량 고객에 대한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이 확산됨

· 카드 : 현대카드의 블랙카드와 퍼플카드, 비씨카드의 다이아몬드 카드, 롯데카드의 롯데 플래티늄 카드 등은 초우량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음

· 패션 : 프랑스 명품 구두 브랜드 벨루티는 수석 디자인을 한국에 초청 550~1,500만원까지 하는 구두를 10여명의 초우량 고객에게 제공하였으며, 페라가모의 '트라메자', 루이비통의 '세상에 하나뿐인 트렁크 제작 서비스' 등도 패션업계에서도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음

· 가전 : 유퍼피안 프리미엄 가전을 취급하는 일렉트로룩스 코리아, 에스프레소 메이커 수입업체인 그룹 세브 코리아 등 가전업체들은 초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뷰티 클래스', '파티 테이블 클래스' 등을 개최하는 등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을 도입하고 있음

· 자동차 : 최근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에쿠스' 고객과 '과브' 고객 DB를 교환, 이를 자사 프리미엄 상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8) 본문 내용은 trendwatching.com, 각 언론사 보도자료, 각 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백화점** : 롯데백화점은 5,000만 원 이상, 신세계와 현대 백화점은 3,000만 원 이상, 갤러리아 백화점은 3,500만 원 이상의 백화점 카드 매출 고객들에 대해 특별 라운지 제공, 패션쇼나 음악회 초청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Blingclusivity** : 숨기다 혹은 가장하다는 의미의 Bling과 특별함 또는 유일함을 의미하는 Exclusive의 합성어로 기존의 명품과 새로운 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상품을 말하는데, 이 경우 기존 명품 브랜드를 밝히지 않을 경우 매스클루시버티는 새로운 상품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됨
- **iPod Crystalmini** : 애플사는 검은색과 빨강색의 iPod U2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히 크리스털로 외장한 iPod을 극소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잘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크리스털 명품 메이커인 스왈로프스키가 제공하는 크리스털로 장식되어 있음
- **Cyber Exclusivity** : 사이버 공간에서 대중에게는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정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최고급 회원제 서비스를 말하는데, 최근 소득 수준, 취미 등이 유사한 고소득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이들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마케팅 수단이 등장하고 있음
- **noblian.com** : 신라호텔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최상급 문화 정보, 명품 쇼핑, 고품격 회원들만의 커뮤니티인 노블리안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매월 1만부 정도의 오프라인 매거진인 노블리안을 제공하고 있음
- **LousiG.com** : 한화유통이 운영하는 갤러리아 백화점 또한 샤넬, 카르티에, 에르메스 같은 해외 브랜드 제품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을 겨냥해 멤버십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만원의 입회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은 극소수 초우량 고객들에게 존경과 특권을 부여하여 그들을 감동시킴으로써 매출 극대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기업들은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고객 관리 및 유지 마케팅 강화** : 기업은 고객을 계층별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CRM (Consu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을 구축해야 함
 - 특히 유사한 취미나 소비 성향 등을 갖춘 고객들을 커뮤니티화하고,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고객들과는 차별화된 CRM 도입이 필요
 - **'경험의 질'의 상품화** : 몽블랑, 할리 데이비드슨, 스타벅스 등은 그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험한 문화'를 상품화시키고 있는데, 기업들은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해야 할 것임

9) 남북 관계 : 남북 관계의 신지평 전개

○ 부시대통령은 11월 18일의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이 북핵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발언 의미** :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으로 정전 상태와 북미 교전 상태의 청산을 의미하며, 나아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안전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북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

·특히, 부시 대통령이 '폭군'으로 지칭한 김 위원장과 공동 서명하겠다는 것은 그를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고, 무력을 통한 인위적인 대북 정권 교체 (regime change) 시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강한 의지 표현으로 평가됨

- **발언 배경** : 북핵 실험과 부시 행정부의 중간 선거 패배, 이라크 전쟁 실패와 반미주의 확산 속에서 북한에게 핵폐기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듯함

6자는 이미 9.19 공동성명 제2항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제4항에서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

·미국은 11월말의 북미 회동에서 북한에게 완전한 핵폐기 시점을 부시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으로 정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등을 다룰 5~6개의 실무그룹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쟁점) 미국의 종전 선언 시점과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주한 미군 철수 등에 대한 한미 및 북한과의 입장 차이가 존재

- **선언 시점** :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희망하나, 일정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미국은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핵폐기 이행 과정(동결→신고→검증→폐기) 중 '동결과 신고' 단계의 '초기 이행 조치'에 해당하는 여러 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패키지로 묶어 제공할겠다는 내용을 제안

·초기 이행 조치에는 제1단계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고 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과 종전 협정에 서명하고,

2단계에는 북측이 핵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면 미국인 인도적·경제적 지원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북한은 자위적 억제력 차원에서 핵보유를 주장하면서, '동시 이행 원칙'에 기초하여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미 제네바 핵합의 이행(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협정 주체** : 한미는 남북 당사자 원칙하에 정전협정의 서명자인 미·중이 보증하는 형태로 하며, 핵 협상과는 별도로 '평화 포럼'이나 '워킹 그룹'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의 주체가 미국이므로 북미 협정 체결을 주장
- **주한 미군 등 현안** :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군축, 유엔사 해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이에 한미는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주한 미군 주둔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것인 만큼, 해체도 평화협정과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

< 평화협정 관련 남북한 입장 비교 >

남한(미국)	구분	북한
- 북한의 핵 포기(미국 동일)	전제 조건	- 북미 관계 정상화
-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 고수 - 미·중이 보증하는 '2+2' 방식 검토 (미국은 남한 입장 지지)	협정 체결 당사자	- 북미 평화협정 체결
-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정전체제 유지	정전체제에 대한 인식	- 정전체제 무실화 전략 추진 - 북미 평화협정 체결
- 대북 억지력으로서 계속 주둔 - 평화협정과는 별개 문제(미국)	주한미군 인식	-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 (시사점과 과제) 평화협정 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민족 공조와 국제공조의 균형 속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강화
 - **시사점** : 북미간 입장 차와 상호 불신으로 북핵 해결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단기간 내에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는 어려울 전망
 평화협정 체결은 단기적인 이행보다는 '대북 유인 카드' 성격이 강한 중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조기 실행 가능성은 낮음
 - **과제** : 북미 상호 신뢰 회복과 인식의 격차 축소를 위해 낮은 단계의 합의와 동시 이행 원칙을 견지하도록 북미 양자를 설득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
 또한 동북아의 중재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3. 시사점과 대응 방안

- (시사점) 2007년 예상되는 국내 신 구상(九想)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위협 요인 : 미래 비전 신드롬의 인기영합주의화, 토지공개념 논의의 계층간 갈등으로의 변질화, 자본 시장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난 등이 한국 사회와 기업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기회 요인 : 미래 비전 제시에 따르는 경제 심리 개선, 대외 수출선 다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증권 시장의 구조조정 성공으로 인한 자본 시장의 선진화, 女風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제2의 인생(The Second Life)과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 확산에 의한 새로운 소비 시장 부상, 복핵 문제 해결에 따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의 기회 요인도 병존할 것임
- (대응 방안) 2007년 예상되는 국내 신 구상(九想)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르는 시장 왜곡 가능성 차단, 자통법 도입에 따르는 혼란 방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기반 확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질서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속 등이 요구됨
 -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 : 한국 사회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어지는 정책들은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법, 예상되는 정책 부작용 등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도 함께 담아야 할 것임
 -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르는 시장 왜곡 가능성 차단 : 토지공개념의 획일적 도입보다는, 가격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은 국공유지로 대상을 한정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조세정책, 대출규제 등과 같은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따르는 혼란 방지 :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은 다양한 파생적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고 여타 금융관련 법규와 상충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할 것임
 -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기반 확대 : 양성평등 의식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사이버 공간에서의 질서 구축 : 사이버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간 범죄 발생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속 : 북미 상호 신뢰 회복과 인식의 격차 축소를 위해 낮은 단계의 합의와 동시 이행 원칙을 견지하도록 북미 양자를 설득이 해시키는 노력이 필요
- 기업은 중후진국 시장에서의 경쟁 대비, 기업 내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 사이버 소비 계층에 대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강화,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중후진국 시장에서의 경쟁 대비 :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후진국 시장에서도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기업 내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 : 여성을 권력의 하부구조가 아닌 평등한 동료로서 보는 기업 구성원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이를 확산시키고자하는 일관된 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함
 - 사이버 소비 계층에 대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강화 : 현실 세계의 상품·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오프라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 강화 : 매스클루시버티의 극소수 초우량 고객들에게 존경과 특권을 부여하여 그들을 감동시킴으로써 매출 극대화를 꾀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임

경제연구본부 (3669-4121, swha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내수 부진 속, 수출 경기 호조 지속

○ 2006년 12월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한 291.7억 달러, 수입은 13.8% 증가한 275.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2006년 연간 수출액은 3,26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6%의 증가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42.3%), 철강 제품(41.8%), 선박(16.3%), LCD패널(15.3%) 등이 호조세를 지속함
- 수입은 원자재(전년동월대비 17.1%)는 원유·LNG 등 주요 에너지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자본재(6.9%) 부문은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미약한 증가세를 기록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올해 수출 경기 둔화 예상

- 최근에 들어 미국 경기 하강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 및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2007년에도 수출 경기가 호황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3/4	4/4	1/4	2/4	3/4	11월	12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4.5(1.6)	5.3(1.6)	6.1(1.2)	5.3(0.8)	4.8(1.1)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4.4	6.8	5.0	5.5	2.2	4.1	-
		설비투자추계	1.4	3.2	1.1	7.0	4.3	4.2	10.0	5.3	-
		건설수주	-3.9	9.5	15.8	-17.9	-9.7	-14.1	36.2	44.2	-
		수출	31.0	12.0	15.4	11.4	10.6	16.9	16.4	18.7	13.8
공급	산업생산	10.2	6.3	7.1	10.3	12.0	10.9	10.6	6.3	-	
	취업자수(만명)	2,256	2,286	2,303	2,303	2,258	2,341	2,331	2,346	-	
	실업률(%)	3.7	3.7	3.6	3.5	3.9	3.4	3.3	3.2	-	
	수입	25.5	16.4	21.1	14.6	19.6	20.3	21.2	12.2	13.8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27	54	-12	7	4	4.2	-	
	무역수지(억\$)	294	232	49	61	14	49	25	39	16	
물가	소비자물가	3.6	2.8	2.4	2.5	2.1	2.2	2.5	2.1	2.1	
	생활물가	4.9	4.1	3.4	3.6	3.1	3.1	3.5	2.6	2.6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내 주가 급락

○ (해외 금융 시장) 美, 경기지표 예상치 하락 예상으로 금리 소폭 하락

달러화는 유럽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가능성 언급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 시현

- 금리: 연말 금리의 급등에 따른 조정 및 미국 경기지표 둔화 예상 둔화 등으로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4.70 → 4.60%)
- 환율: 유럽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가능성 언급 등으로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반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 등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약보합 시현(\$/€: 1.3199→1.3084, ¥/\$: 119.07→119.05)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대폭 하락

삼성전자 4/4분기 영업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주가 대폭 하락

- 주가: 삼성전자의 4/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외국인주식투자자의 현·선물 순매도가 급증한 데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관련주들의 약세로 대폭 하락 (1,434.5→1,397.3)
- 금리: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 소비자대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 시현 (국고채 3년 수익률, 4.92→4.89%)
- 환율: 연초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에 따른 원화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정책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소폭 상승 (929.8→934.6)

○ (전망) 주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소폭 상승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3/4	4/4	1/4	2/4	3/4	4/4	12.29.	1.5.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34.5	1,397.3
	국고채3년(%)	4.60	5.08	4.93	4.92	4.57	4.92	4.92	4.89
	원/달러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9.8	929.8	934.6
해외	DOW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2	12,463.2	12,481
	Nikkei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26	17,354
	미국채10년(%)	4.32	4.39	4.85	5.14	4.63	4.70	4.70	4.60
	일국채10년(%)	1.48	1.48	1.78	1.93	1.68	1.69	1.69	1.72
	달러/유로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199	1.3084
	엔/달러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9.07	119.05
	두바이(\$/배럴)	56.32	53.19	59.16	67.17	57.33	56.71	56.71	55.12

주 : 해외지표는 전일(1.4.) 지표이고, 국내지표는 12:00기준임.